

<동정자료>

## 손병석 차관, “청년 창업 결합된 도시재생 강조”

군산 도시재생지역·새만금 방문·내년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사업 속도 빨리질 것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(금)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.
  - 먼저, 손병석 차관은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,
    - “군산시가 지역 특화 자원인 ‘근대문화유산’을 재생사업의 테마로 잘 활용하는 가운데 지역 청년, 주민,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,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.”며,
    - “군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지역주민, 상인·전문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센터·군산시의 노력의 결과.”라고 격려했다.
    - 또한, “국토교통부가 향후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군산시의 성공 사례도 확산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덧붙였다.
  - 아울러, 군산의 전통시장인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\*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규 창업자 발굴·지원을 위한 ‘액티브 로컬 워크숍(창업교육 및 멘토링)\*\*’ 현장도 방문하여 청년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\* (사업내용) 점포 리모델링 및 청년창업 유도, 기반 시설 및 심터 조성  
\*\* (주최 / 주관) 군산시 / 도시건축공간연구소(영화시장 활성화 용역 수행 중: '17. 2 ~'18. 6.)
- 손 차관은 “유휴 공간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지방 도시에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”임을 강조했다.

- 또한, “액티브 로컬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의 현장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과 충분한 기획 기간, 지역 관리 회사 운영 등의 요소를 도입한 도시재생의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.”라며 평가하고,
  - “민·관, 지역 청년·주민들의 협력 방식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프로젝트인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,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- 이어서, 손 차관은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추진 현황과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부지를 점검했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, “국정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조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.”며,
    - “11월 10일 발의된 새만금특별법(조정식의원 대표 발의)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  - 또한, “세계잼버리대회(23. 8.)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의 주요 사회기반시설(SOC)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  - 아울러, “도로사업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7. 11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